

모든 것이 적절한 자리에 있는 도서관 풍경

- 인터뷰이: 박비나(그림기록팀)
- 인터뷰어: 허나운
- 인터뷰 날짜: 2022년 9월 17일
- 장소: 페이퍼백 사무실

박비나

네 저는 박비나고요 이번 은평 로컬 아카이빙에 그림기록팀으로 지원해서 그림 작업하고 동네 도서관에 관련된 작업하고요 은평구립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허나운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서 석 달이 지났고 이제 전시를 할 텐데 전반적으로 어떠셨는지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비나

앞선 인터뷰에서도 말은 했었는데 제가 하던 작업이랑 좀 비슷한 결이 있었어요. 접근은 쉬웠는데 하다 보니까 차이점이 그전에 했던 것들은 어떤 구도적인 아름다움이나 이제 그림 자체에서 예뻐 보이거나 그림으로서 완성되었을 때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치중을 두었다면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을 지금 제가 다 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걸 봤을 때 접근에 있어서 이거를 내가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흔히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이라도 다시 보게 되고, 물론 내 개인적인 서사로 기록이 되겠지만 그게 남겨졌을 때 어떤 형태로 내가 남길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가던 곳(도서관)을 소재로 삼긴 했는데, ‘내가 되게 잘 알고 있겠거니’ 해서 갔는데 의외로 모르는 모습도 많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서 그걸 그림 작업으로 하는 거 글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허나운

도서관이 익숙한 장소인데 이번에 아카이빙 작업하면서 좀 다르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전과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박비나

사실 다르게 보였다고보다는 제 마음이나 그런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석구석, 특히 그 도서관 안에 있던 옛날 아이템들은 진짜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고 그리고 도서관 직원분들의 대응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왜 있지? 왜 아직도 있지?” 이런 반응이 아니시고 “그냥 계속 있었어요” 우리 집에 무슨 키우던 애완동물 다루듯.....그냥 계속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거나 다른 인식이 있지 않으셨는데 그냥 친근하게 설명을 다들 해 주셔서 은평구립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많고 오래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있을 곳에 참 적절히 잘 있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허나윤

그럼 비나님 그림에 나왔던 회중시계 이런 것들도 안 없애고 그냥 계속 도서관에 두신데요?

박비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제가 여쭙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곧 치울 거예요. 없앨 거예요” 그런 식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오래된 스피커라든지 작은 상자들이 벽에 붙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여쭙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이 딱히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어우러져서 그냥 같이 가는구나 그렇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모르죠. 행정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 안에서 진짜 무슨 옛날 무슨 성을 구경하듯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봤어요.

허나윤

저도 비나님 그림 보면서 구립도서관에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고정적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아카이빙 작업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박비나

글쎄요 (도서관이) 상황이나 현실에 맞춰서 발전되고 바뀌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물론 도서관 내에 있는 옛날 물건들을 포인트를 잡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또 너무 안타깝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제가 기록한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먼 훗날에 미래의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허나운

평상 시에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박비나

저는 주로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예술 분야나 그런 쪽 책들 많이 빌리고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 관련된 내용 필요한 것들 찾아서 하고 주로 제일 많은 건 아이들 책이죠. 심부름 다녀요한꺼번에 가서 같이 빌리고 올 때도 있고 급하면 저 혼자 와서 반납하고 또 빌려가고 하고 근데 이번에 새로 지하에 생긴 그 스마트리움 공간에 아이들 수업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한번 찾아서 수업을 듣게 해보고 싶어요.

허나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박비나

자주 오고는 못하지만 가끔 같이 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시원하고 이제 책을 마음껏 골라서 볼 수 있고 만화책도 실컷 볼 수 있고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고 그리고 새로 생긴 공간들 중에 또 아이들 이렇게 체험하거나 그런 공간도 있어서 되게 좋아했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디지털관 새로 생긴 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더라고요 DVD 영화 쪽도 궁금해하던 영화도 구경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관련된 음향 듣는 것 그런 것도 혼자 찾아서 보고 좀 신기한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자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립도서관이 비나 님한테는 가장 애용하는 생활 문화 공간인가요
은평에서

허나운

그럼 혹시 처음 구립도서관 갔을 때의 기억이 있으세요?

박비나

처음 갔을 때요. 길을 좀 헤맸어요. 그때는 내비나 그런 게 없어서 골목을 이렇게 막 찾아서
헤매서 갔는데 길을 헤맸던 기억이 있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우선 책들이 많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종합열람실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어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처음 간 게 대학생 때인가 다른 대학교 도서관들도 다니면서 구립도서관을 간 것
같은데 거기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고, 소문에 그 도서관 밑에 있는 식당이 밥이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동네 어르신분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허나운

저도 여기 산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도서관을 갔던 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구립
도서관이 되게 좋다는 저도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저는 걸어 올라가면 저렇게 높은
곳에...저는 계속 언덕 위에 도서관에 있구나 라는 기억이 남아있어요

박비나

큰 아이 어릴 때는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 수업도 해주고 굉장히 막
그런 활동들이 많았는데 접근성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있어요.

허나운

그래서 처음에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도서관으로 왜 저렇게 꼭대기를 다 지어놨을까

박비나

그런데 한번 해질 때 가보니까 이 도서관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또 알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고 딱 그 도서관만을 향해서 목적지를 삼고 간다고 보다는 동네 언덕 산책이나 그쪽을

산책하면서 중간에 들어서 약간 책도 보고 쉬면서 그런 개념의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렇게 많이 오시고 배낭 매고 오시고 대학생 청년분들도 이렇게 잔뜩 갖고 와서 과제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인근에 사시는 분들이실 것 같기도 하고 좀 궁금해서 여쭙보고 싶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였고 좀 이렇게 직접 가서 말 걸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주변 어른분들, 친정 어머니나 지인분들이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나도 가서 한번 가서 좀 책 좀 보다 올까” 그리고 요즘 신문 보는 집들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런 간행물들이 많아요. 했더니 설렁설렁 갔다 와 볼까 이제 그런 반응들도

허나운

은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있는 장소 이렇게 했을 때는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은평에서 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라는 그 존재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비나

(은평에서) 도서관의 존재가 매우 큼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공간이에요. 은평구 안에 있는 도서관들이 약간 지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골목들에 들어가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넓은 부지들이 딱히 크게 없다보니까 그리고 골목에 있다 보니까 주차 자리도 협소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본 도서관들이 문화 프로그램이 너무 알차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이 실버 문화까지 섭렵하는 정도로 너무 일들을 잘해 주고 계셔서 진짜 접근성만 좋으면 너무나 잘 활용하고 싶은 곳이 도서관이거든요. 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머님들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들을 꺼내요 여기에도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저기에도 지어주세요.

굉장히 건의 사항이 많아요. 저는 은평구 안에 있는 도서관들이 굉장히 공간들도 개성 있고 내용도 너무 일들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허나운

그러면 비나님이 좋아하시는 은평의 도서관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

박비나

저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은평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 대표적인 도서관이긴 한데, 외부인들이나 다른 지인들에게는 약간 문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윤동주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시들을 쉽게 잘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래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건물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은평구 도서관들의 특징이 크기가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 옆에 있는 산 지형물이나 동네 공원 이런 거랑 연결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벽을 허물고 뒤에 있는 동산, 옆에 있는 공원 놀이터를 유동적으로 다닐 수 있게 구조를 짜 놓은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림에 좀 담고 싶었거든요.

허나운

아카이빙 실습이 솔직히 긴 기간은 아니었고 원래 아카이빙이 한 번에서 끝나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나 개인의 활동으로 아카이빙 작업들을 좀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박비나

네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같이 팀이 짜여진 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인 작업만 하게 돼서 그게 많이 아쉬워요. 후반 때 팀 작업으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을 하게 됐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동안 교류 없이 진행이 되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기록 작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소재를 다른 걸로 옮겨서 그냥 작업을 좀 해보고 싶고 최근에는 제가 턱 디스크가 있는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이 스플린트라는 기구를 이제 하나 맞춰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누구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치료가 굉장히 생소하고 나조차도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간단한 그림과 그때 어떤 통증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던 길 오던 길 그런 것들 사소한 거라도 좀 적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간간히 기록을 해놔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많았는데 다 그냥 흘려보낸 게 너무 많거든요.

좀 생뚱맞고 사소한 소재지만 이런 태도를 내가 좀 가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게 시작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소재나 이런 주제를 떠나서 아카이빙에 대한 태도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허나윤

그럼 이 (아카이빙 실습) 과정에 들어오시기 이전과 생각이 바뀌시거나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건가요?

박비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뭔가 더 첨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너무 이것 좀 가볍게 여겼던 게 있는데 이게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좀 정리를 하고 남겨봐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허나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박비나

초반에 각 분야의 선생님들 만나 뵈고 설명 들은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그림팀 실습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다른 팀원분들의 부담감과 그런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물론 개인 작업으로 저는 진행이 되었지만 우선은 그림팀의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좀 봤거든요.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광천 팀이 다르다 보니
조언이나 도움을 제가 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현장 드로잉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불광천 팀, 도서관 팀 나누기
전에 우선 다 같이 어떤 공간에 가서 현장 드로잉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